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네들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나쁘든 좋든, 먹을 게 없든 있든, 자기 먹는 것에서 먼저 떠서 부뚜막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그날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 주고, 그 속쌀 뜨물을 얻어다가 폭폭 끓여서 식구가 먹기 전에 먼저 떠 놓은 미음 한 그릇을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난 스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어서 나무라도 한 짐 지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한 짐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고만 자기 은사한테 들켰습니다.

은사 스님이 "뭐 하려고 나무를 해 가지고 오느냐?" 하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줄 양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겟작대길 뺏어 가지고 아랫도리를 그냥 능거쳤습니다. "이놈아!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늘 어찌 때 버리고 나면 그만인 나무 한 짐을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나무를 짊어진 채 데굴데굴 구르다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스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너무나 상쾌해서 그때 거기에서 한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해부터 남의 마름을 얻고 남의 집을 얻고 그래서 잘살게 돼서 그 동네 일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무심의 마음 한생각에 그렇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병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깨치지도 못했으니까 못 한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쭉쭉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쳤든 안 깨쳤든 자기가 생각을 잘하면, 자기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들이 바로 아까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에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사회에서 괴로움이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기가 한 대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 입력을 다시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니 화탕지옥, 독사지옥 이런 지옥이 다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는 안락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에도 걸림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열반계로 드는 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육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체 만법을 정신계로 해 나갈 수 있고,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 보면, 내일모레도 또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각처에 지원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그래도 집에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할 여유가 없고 자식과 부모가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점점 점점 그렇게 여유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좋은 뿌리, 좋은 나무의 싹으로서 좋은 열매를 열리게 하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게끔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남편 뒷바라지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에 바로 뿌리가 돋워지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그것이 꽃이 피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향기가 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만 가지 맛을 내니 바로 한마음으로써 서로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늠름하고 떳떳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당당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셨고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설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느라고 애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저절로 나을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면 바로 육신의 모든 의식이 한마음으로 따라 줄 것이고,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가 돼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가지고 일을 해 나오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볼 수 없는 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데서 들을 수 있고, 한번 책정을 내리면 그대로 법이 되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나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너 마음부터 알고 사람부터 돼라." 하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 댈 것도 없이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파로써 전 세계에 두루 통신할 수 있고 텔레비전으로 안방에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체가 없는 마음이 일체 우주를 손안에 넣고,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누진,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으로써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도리는 숭상을 안 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하고 만날 보이는 물질세계, 학술적인 이론 또는 지식적인 문제로만 한다면 수박 겉 핥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나보다도 백배 천배 낫겠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팔십 살 백 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조그맣다고 버리고 크다고 갖고 이러지 마세요. 바로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바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자력, 통신력, 광력, 전력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지금 물만 없어도, 공기, 바람만 없어도 우리는 모두 못 삽니다.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만큼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면서도 이 안에 광력도 있고 자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안에서 쓸 거는 안에서 쓰고 바깥에 있는 거는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인 자가발전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걸 맘대로 굴릴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오신통에서, 바로 다섯 가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서 사대에 통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흙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 인간에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땅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기름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다가는 앞으로 닥치는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저렇게 지구 바깥으로 도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게 달아나가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딴 사람이 써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체가 없는 마음은 그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을 가게도 오게도 할 수 있는 자력의 능력이 얼마든지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교가 따로 있으며 어찌 부처가 어떠한 개별적인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천체가 돌아가는 이치,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치, 제자리걸음 하고 돌아가는 이치, 바로 불바퀴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요 마음을 내면 여러분이 법이요 육신이 움죽거리면 바로 여러분이 화신이라, 삼위일체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며 내면세계의 그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정립시키면서 바로 지배인으로서 리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장래에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한 주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구도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인간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야 어찌 이 세상을 한 주먹으로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30%, 40%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50%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업보성이나 인과성,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무너뜨리려면 바로 내가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